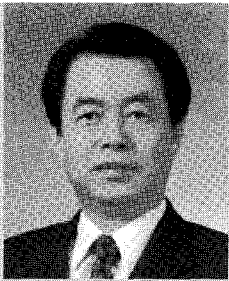


품질제일주의, 고객만족 극대화 실천

올 해, (주)필맥스 발전 토대 마련할 터



김 호 영
(주)필맥스 대표이사

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름하는 수많은 요소 중 직원들의 애사심만큼 기업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은 없을 것이다.

1971년 셀로판(Cellophane)을 국내 최초로 생산, 본격적으로 화학산업에 진출한 이후 OPP 필름, CPP 필름, PET 필름 등으로 생산영역을 넓혀 온 포장필름 전문 생산업체 (주)서통은 지난 해 경영 자금난 악화로 최종 부도를 맞기에 이른다. 2003년 5월 3일, 기업 구조조정 전문 기업 KDB 론스타 컨소시엄이 (주)서통의 필름사업부분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주)서통 사원투자자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주)필맥스(대표이사 김호영)는 탄생하게 됐다.

지난 해 7월 16일, 초대 김호영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현재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주)필맥스를 찾았다.



▲ (주)필맥스 생산제품



▲ 경북 구미에 위치한 (주)필맥스 공장 전경

전(前) KDB 론스타 부사장을 겸한 김호영 대표이사는 "(주)필맥스의 태동을 지켜보면서 주주로 참여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믿음과 포장용 필름 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경영에 대한 믿음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됐다"고 밝힌다.

현재 (주)필맥스는 영업본부가 있는 서울 여의도 사무소와 생산 및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 구미 공장에 약 300여명의 임직원이 OPP 필름을 비롯해 CPP 필름 Polyester 필름 등 5개 제품군에서 총 60여종의 품목을 생산, 연간 70,000톤의 생산능력을 자랑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PVDC Coated 필름,

Metalized 필름, PP 수축필름으로 생산영역을 확대하는 등 꾸준한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로 각종 포장재, 점착테이프 등 관련 재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필맥스의 생산제품 중 이축연신필름(Biaxially Oriented Polypropylene film)은 폴리프로필렌을 주원료로 기계방향 및 기계수직방향으로 이축연신한 필름으로 필름의 기계적 강도와 광학적 특성이 우수해 식품포장 및 합지용도로 널리 이용된다. 또한 CPP 필름은 우수한 투명성 및 표면광택, 열접착강도, 치수안정으로 스내 포장, 레토르트 식품포장의 Sealant Film

등으로 이용된다. 이 외에도 각종 상품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필름류 중 위생과 관련되어 기존의 필름에 항균성을 부여한 특수 필름인 항균 필름 등 다양한 물성과 용도의 Base 필름을 고급 설비로 생산, 신설법인 운영 개시 6개월만에 36억원의 이익을 거두는 등 임직원 및 고객 만족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

(주)필맥스는 1등 기술만이 살아남는 현 포장 업계를 보면서 기존 제품의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동시에 고 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위생적이며 친환경적인 소재를 기본으로 기능성을 접목시키는 것만이 포장용 필

FILMAX

름 분야의 개발 방향이라고 판단, 소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원칙중심의 투명 경영, 수익성을 기초로 한 튼튼한 경영, 고객 중심의 시장 지향적 경영을 실천할 때 비로소 주주와 고객, 임직원이 신뢰하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호영 사장은 인재개발을 통한 기업의 발전을 꾀한다.

사원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발전으로 연결된다는 것.

김호영 사장은 경쟁이 심화되어 가는 포장업계 속에서 고급화를 통한 제품 개발과 품질 제일주의만이 업계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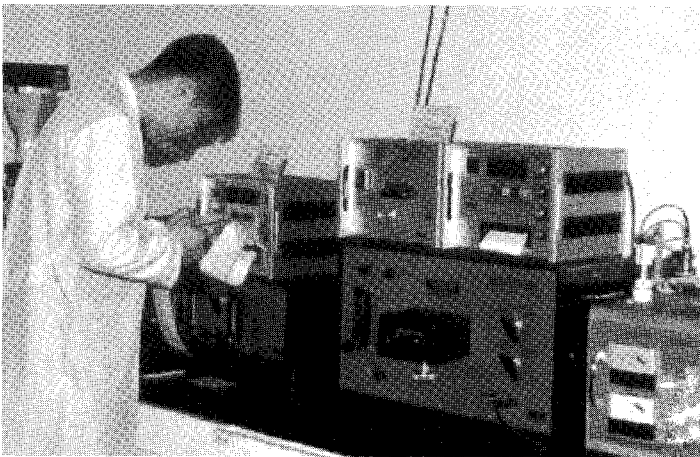
중국 OPP 필름 유입에 따른 국내 필름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2004년 현재, 김호영 사장은 “차별화된 범용 그레이드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하고 중국 시장에 역으로 진출함으로써 중국 필름 시장의 유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여 나갈 계획”이라고 자신있게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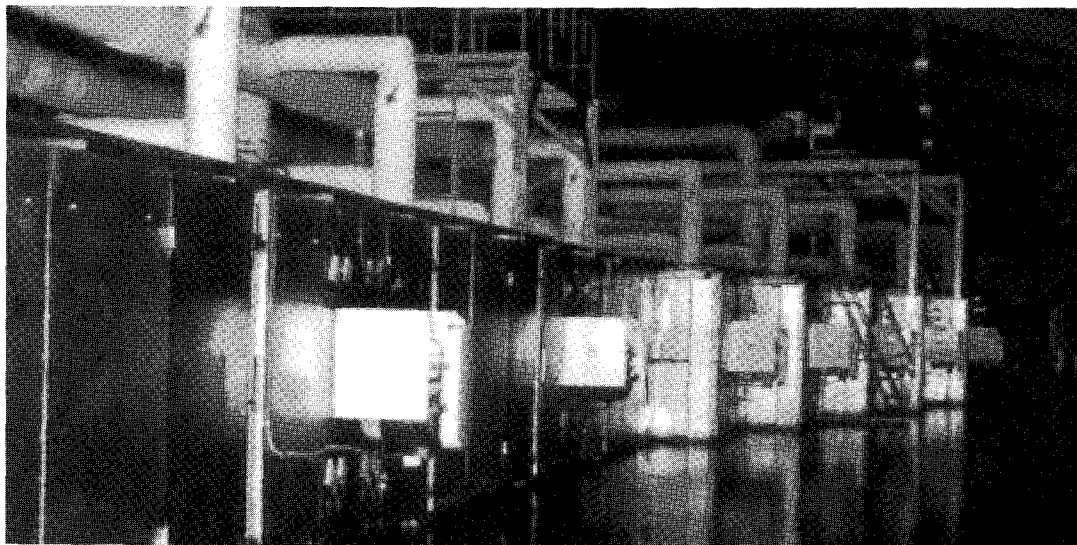
(주)필맥스 연구소는 인간과 사회를 생각하는 환경친화적인 포장소재와 다기능, 첨단 기능을 갖춘 기술집약적인 포장소재를 개발 연구할 뿐만 아니라 고객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을 지원한다는 자부심으로 (주)필맥스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제조업에 있어서 누구나 만드는 기술과 제품은 진정한 의미의 기술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주)필맥스의 연구원들.

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투명하면서도 통기성을 갖는 필름과 반대개념으로 나노(Nano) 기술을 이용한 초고차단성 PVA 코팅 필름, 기능성 합성지 등을 개발해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주)필맥스 연구원



▲ (주)필맥스 필름 생산 설비

“포장용 필름 제조의 Core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하고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용 필름 소재 개발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름업계 최초로 ISO 인증을 획득,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주)필맥스는 ‘필름의 품질은 고객과의 약속’이라는 철학으로 고객의 품질만족을 위해 엄격한 규정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 수주에서 사후관리까지 종합 품질보증 시스템으로 고객만족을 실현 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많은 역경과 고난 끝에 탄생한 (주)필맥스는 (사)한국포장협회 회원 가입을 통해, 포장업계 일익을 담당하고 제2의 도약을 맞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영 사장은 포장업계를 대변하는 (사)한국포장협회가 기술지도 사업을 실천하고 업계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업계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가 활발히 이뤄질 때 회원사 모두의 성장·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필름 산업은 기술집약 산업’인 만큼 R&D가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김호영 사장.

앞으로 (주)필맥스는 외부 기술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된 신제품 사업군 개발, 그리고 고객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 지원을 목표로 제2의 도약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임직원이 기업의 투자자”라는 포장업계 유래 없는 일례로 자리잡은 (주)필맥스가 책임감과 애사심으로 태동한 초심(初心) 그대로 포장업계의 거목이 되길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